

“본선보다 치열”... 민주당 경선 레이스 출발

광주·전남 18곳 중 13곳 경선·단수 후보선정 지역 확정
공관위, 5곳 논의 중... 일부 선거구 여성 단수공천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선거구 18곳 중 13곳을 경선 지역과 단수 후보선정 지역으로 확정하면서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일부 선거구에 여성 단수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구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민주당 공관위는 19일 광주 동남갑과 광산갑, 광산을,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영암·무안·신안군 선거구 등 광주·전남 5개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다.

광주 동남갑은 윤영덕·최영호, 광산갑은 이석형·이용빈, 광산읍은 민형배·박시종 후보 간 2인 경선이 이뤄진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김승남·한명진 후보, 영암·무안·신안군 선거구는 백재욱 후보와 현역인 서삼석 의원 간 경선이 치러진다.

공관위는 또 이날 현역 의원인 이개호 의원이 단수후보로 나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를 단수 후보 선정 지역으로 확정했다.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이 의원만이 단수 후보로 선정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날 현재까지 광주 선거구 8곳 중 6곳, 전남 선거구 10곳 중 6곳 등 광주·전남지역 12개 선거구를 경선지역으로, 1개 선거구는 단수 후보지역으로 확정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광주·전남지역 경선 지역으로만 보면 민주당이 내세웠던 전략 공천 최소화와 2인 경선 원칙은 대체로 지켜졌다는 분석이다. 광주는 현재까지 확정된 경선 지역 모두 2인 경선으로 결정됐고, 3인 경선은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에 서만 이뤄진다.

아직까지 경선 지역 또는 경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는 광주 서구갑, 서구을 등 2곳과 전남 여수갑, 순천, 광양·곡성·구례 등 3곳이다.

광주 서구갑 선거구는 광주 유일 현역인 송갑석(서구갑) 의원이 단독 후보로 신청한 가운데 중앙당이 현역 의원 경선 원칙을 적용하면서 추가로 후보를 공모하고 있다. 만약 추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광주에서 유일하게 단수 후보 선정 지

광주·전남 1·2·3차 경선 지역 발표

선거구	경선 후보자	
동남갑	윤영덕·최영호	
동남을	김해경·이병훈	
북구갑	정준호·조오섭	
북구을	이형석·전진숙	
광산갑	이석형·이용빈	
광산읍	민형배·박시종	
목포시	김원아·우기종	
여수시	김희재·정기명	
나주·화순	김병원·손금주·신정훈	
전남	해남·완도·진도	윤광국·윤재갑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한명진
	영암·무안·신안	백재욱·서삼석

■ 단수 후보 선정지역

선거구	후보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 선거구는 향후 선거구 조정에 따른 분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경선 여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 서구을과 여수갑, 광양·곡성·구례 등 3곳은 공천관리위원 일부가 여성 단수 공천 지역을 주장하면서 경선 지역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 서구을 선거구 등에서는 공관위의 여성 단수 공천 움직임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그동안 지역정가에서 떠돌았던 중앙당의 전략공천과 영입 인제 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공천 심사 전까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광주 동남을, 북구갑, 고흥·보성·장흥·강진 등은 이미 경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땀방 탈환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이 ‘낙하산 공천’이라는 역풍을 우려해 전략공천과 영입 인제 배치를 놓고 많은 고심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광주·전남 지역에 전략공천이나 인재영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총선 D-55 꼭 투표합시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19일 오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시민들의 투표 독려에 사용될 포스터를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민주 경선지 - 광주 북구갑·북구을 ▶5면
- 정찬주 다규 소설 '광주 아리랑' ▶9면
- 신 팔도유람 - 인천 시간여행 ▶18면
- KIA 플로리다 캠프 가다 - 양현종 ▶20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전남 '코로나19 청정지역'

16·18번 환자 퇴원·접촉자도 모두 격리 해제
대구서 확진 급증 ...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강화

광주·전남이 코로나19 청정지역이 됐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모두 퇴원하고, 이들과 접촉했던 격리자도 모두 격리해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등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 등 타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정부도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방역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하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6번 확진환자(여·43)와 딸인 18번 확진환자(21)가 퇴원했다. 앞서 16번 환자의 친오빠인 22번 확진환자(47)도 지난 17일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광주시는 이들과 접촉해 광주21세기병원과 소방학교에 머물던 환자와 보호자 60명에 대한 격리도 20일 0시를 기해 해제했다. 이로써 광주·전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이 됐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원이 불분명한 확진자가 잇따르고, 대구·경북에선

하루새 2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후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초기부터 전염이 일어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다양한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51명이다. 이날 하루에만 20명이 늘었고, 이 중 18명은 대구·경북에서 발생했다. 특히 14명은 31번 환자(여·61)와 같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교회에 다닌 신도들이다. 이에 따라 광주 보건당국도 북구에 있는 신천지교회 등을 대상으로 대구 신천지교회의와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명형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대구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에는 마스크 전달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협의회 연기

노동계 “노사상생 취지 훼손”
광주시 “상생 방안 찾을 것”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와의 마찰로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광주 시청에서 열기로 한 올해 첫 노사민정협의회를 연기했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건립 상황을 설명하고 노동계와의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표가 불참함에 따라 연기를 결정했다. 시는 앞서 몇 차례 노동계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는 등 사실상 거절당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 문제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등 노동계 대표 4명, 기업 대표 4명 등 각계에서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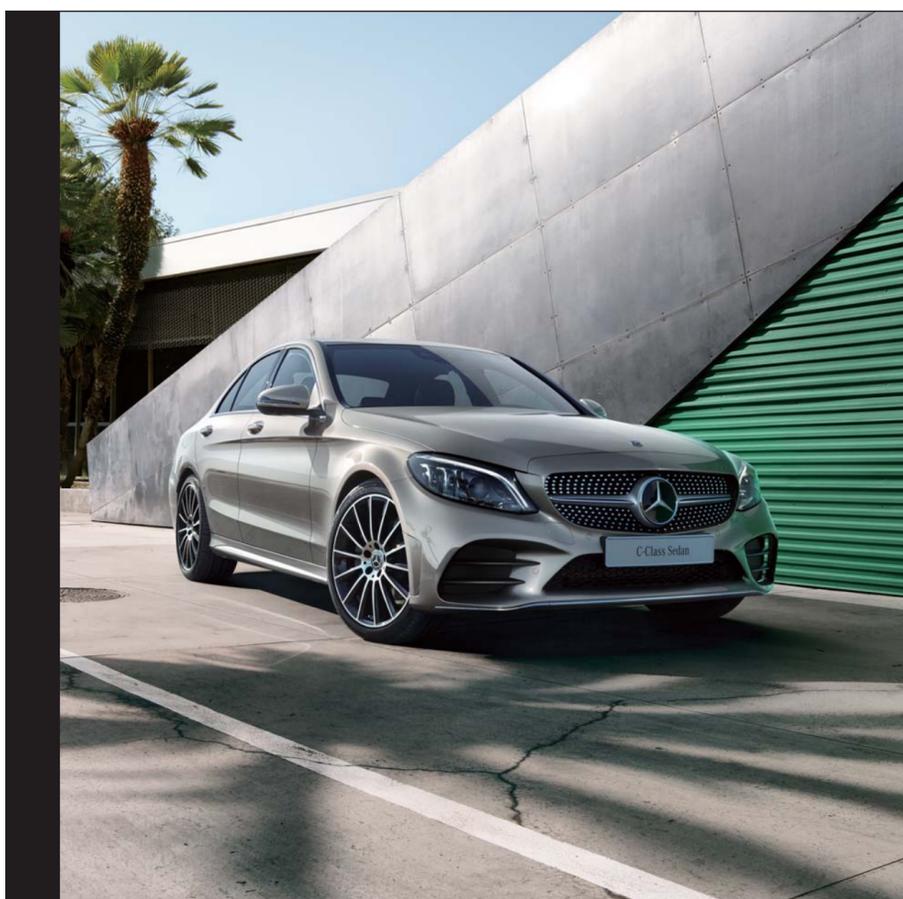
노동계는 노사 상생형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수

주인 현대자동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쪽으로 바뀌고,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마저 차단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와 현대차의 중간에 낀 광주시는 노동인권회관 건립, 노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글로벌모터스 임원의 적정임금 책정 등 협력 방안을 내놓으며 노동계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오히려 오는 3월 청와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등을 선언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었으나, 노동계가 불참에 연기했다”며 “노동계를 설득해 이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l(도시연비): 13.2km/l, 고속도로연비: 16.3km/l, 등급: 2등급, 복합CO2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